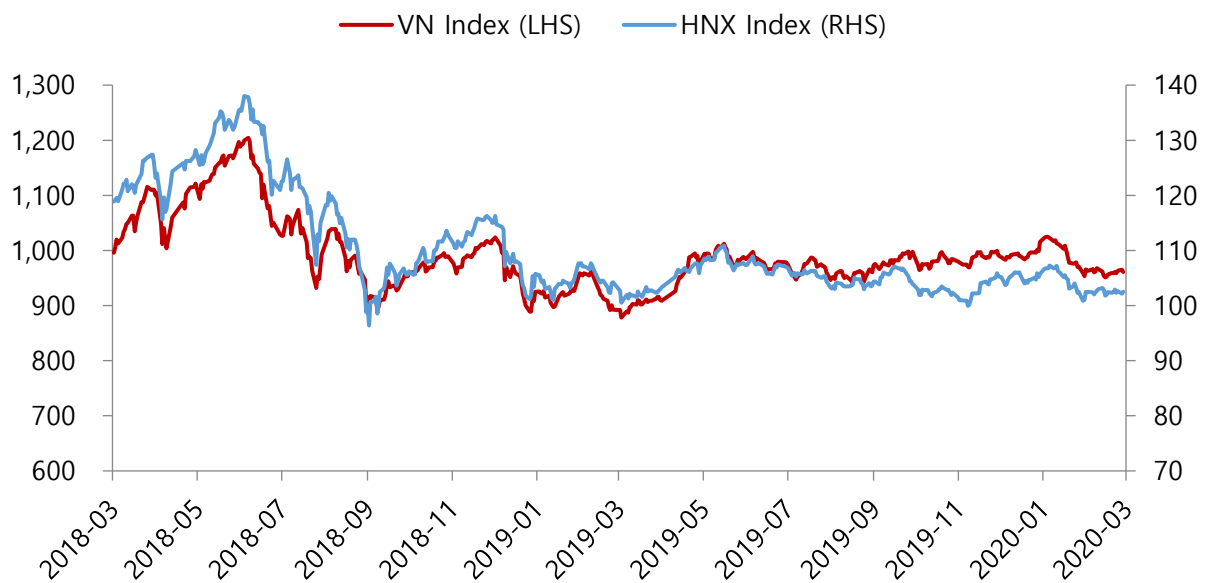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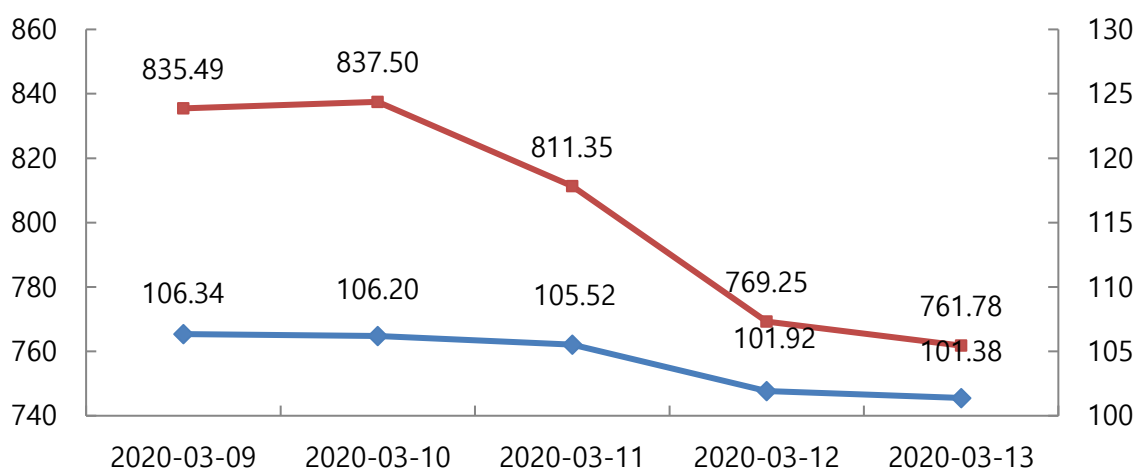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이번 주 주식시장은 베트남의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자와 WHO의 코로나 팬데믹 (Pandemic) 선언 여파로 급락하였다. VN 지수는 월요일 6.28% 하락한 835.49로 장을 마감하였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이다. VN 지수는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 목요일 800선이 무너졌으며 금요일에는 761.78로 장을 마감했다. HNX 지수도 주중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금요일 101.38로 장을 마감했다. 이 같은 주가의 급락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와 미국과 유럽의 증시 등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개별 기업 뉴스

○ 빈그룹, 산업용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다

빈그룹은 산업용 부동산이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부동산 투자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베트남의 가장 큰 기업인 빈그룹은 Vingroup Ventures의 이름을 Vinhomes Industrial Zone Investment (Vinhomes IZ)로 변경하였다. 공개되지 않은 Vinhomes IZ 지분의 대부분은 빈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Vinhomes로 이전되었다. Vingroup Ventures는 지난 2018년 12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Vingroup Ventures는 700억 동(정관 자본)을 통해 설립되었고 빈그룹은 이의 70%를 보유한다. Vinhomes는 산업용 부동산이 아파트, 오피스와 함께 부동산 성장에 중요한 세 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MB 은행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7400만 달러 조달하다

베트남 국영기업인 MB 은행은 8개의 외국 펀드에게 6430만 주를 7440만 달러에 매각했다. 베트남증권위원회(SCC)에 의하면 2월 21-26일 동안의 거래는 20.9%였던 MB 은행의 외국인 지분을 22.9%까지 증가시켰다. 구매자로는 2400만 주를 매수한 Kim Vietnam Growth Equity Fund와 265만 주를 매수한 KITMC Worldwide Vietnam RSP Balance Fund가 있다. 두 기업 모두 한국의 수준 높은 펀드 관리 기업인 한국투자신탁운용(KIM)이 운영하는 자회사이다. 이 밖에도 1538만 주를 매수한 캐나다의 Fiera Capital Emerging Markets Fund와 400만 주를 매수한 미국의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등이 있다. 1월 MB 은행은 2143만 주(자사 주)를 같은 8개의 투자 펀드에게 매각한 바가 있다. SSI에 따르면 이 거래들의 총 합은 약 1억 달러 이상이며 8개의 외국 펀드들은 현재 MB 은행의 지분 4.45%를 차지한다.

2. 주요 경제 동향

■ 베트남 재정적자 근 5년간 최고치 기록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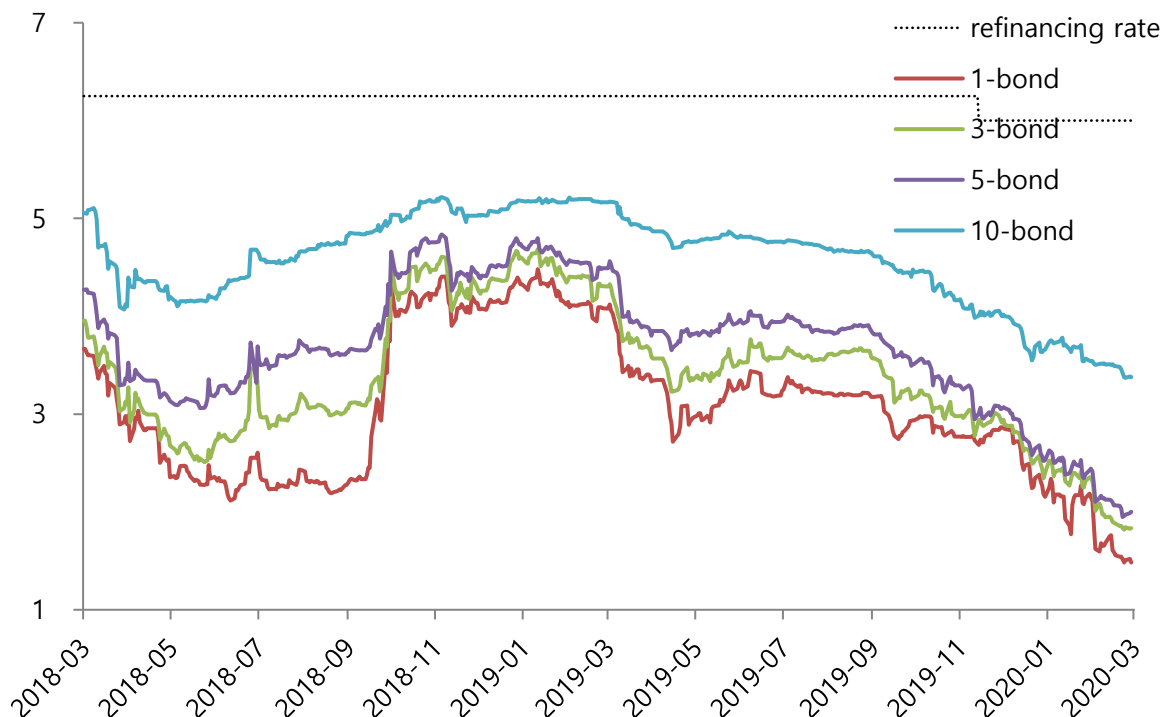
Fitch Solution은 베트남의 재정적자가 2020년 목표치였던 GDP의 3.4%를 초과한 3.8%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은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의 피해를 돕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발표 후 공개되었다. 3월 3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1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6일에는 위 금액이 13억 달러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Fitch는 정부 지출의 증가율을 7.4%에서 8.1%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관광, 교통, 전기와 농업과 같은 산업들의 피해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Fitch는 또한 기업들의 코로나19로 수익에 타격을 받을 것을 예상해 베트남의 조세수입의 증가율을 4.1%에서 3.2%로 하향 조정하였다.

■ 코로나 19로 베트남 GDP 0.41% 떨어질 가능성 존재

ADB의 보고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코로나19의 타격이 적은 편인 베트남도 GDP가 0.41%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 개의 시나리오로 피해를 예측하였는데, 피해가 가장 적을 경우 6억 7500만 달러, 순탄하게 넘어가는 경우 10억 1천만 달러, 가장 심각한 경우 19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19에 타격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일시적이지만 가파른 국내 소비의 감소와, 미래의 불투명으로 인한 투자의 위축, 그리고 관광 및 출장의 감소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특히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게 연결이 되어있는 국가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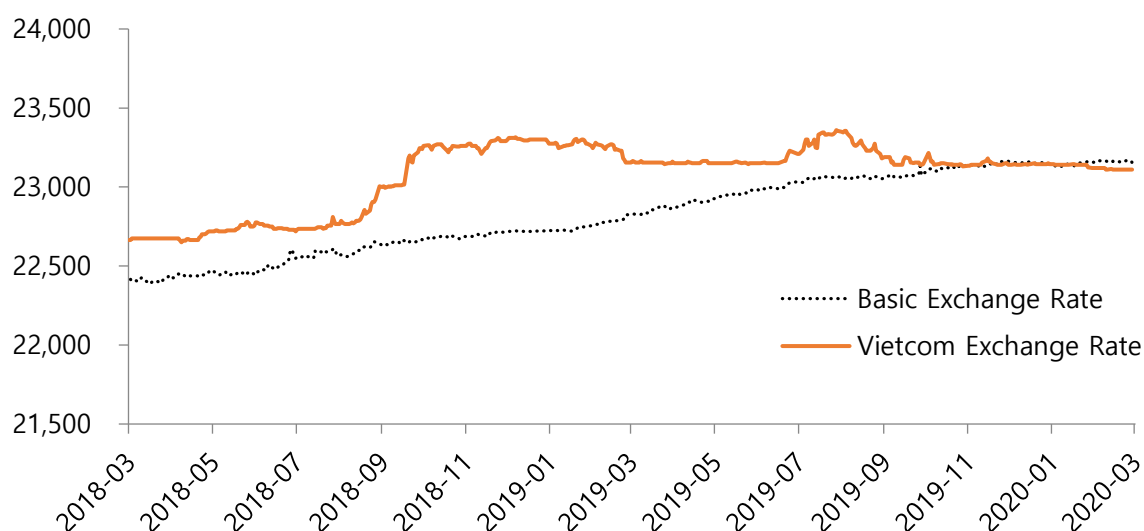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20-03-13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120	23,150	23,290



■ 베트남 은행, 대출 이자율 낮추기 위해 예금 이자율 인하하다

베트남의 다수의 시중 은행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0.1-0.4% 인하하였다. 지난 금요일(6일) ABBank는 18-36개월 정기예금금리를 연 7.9%에서 7.7%로 인하하였다. 지난 수요일(4일) Techcombank도 정기예금금리를 전 금리에서 0.1-0.2% 낮춘 값으로 새롭게 제시하였고 VPBank도 지난 화요일(3일) 6개월 이상의 예금금리를 0.05-0.15% 낮추었다. 전문가들은 예금금리를 0.5% 낮춘 미 연준을 비롯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하여 예금 금리의 인하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부동산 중개업자 1/3 시장을 떠나다

베트남 중개업자의 1/3에 해당하는 300개 이상의 부동산 중개업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타격과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지난 3년간 베트남의 부동산 중개업은 매년 평균 15% 증가했고 2019년에는 약 1000개의 부동산 중개 기업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VARS) 부회장인 Nguyen Van Dinh은 많은 수의 부동산 프로젝트 소유자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택을 임대하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자의 2/3만 시장에 남아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Dinh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큰 도시들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 현대엔지니어링·SK건설, 베트남 첫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도전장

현대엔지니어링과 SK건설이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다. LH는 지난 11일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예비 컨소시엄 참여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략적투자자(SI)로 한국해의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 공사(KIND)와 KBI건설, SK건설이, 건설투자자(CI)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예비 참가사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재무적투자자(FI)로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참여한다. 경협 산단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서 남동 측 약 30km 지점에 있다. 흥옌성 리트엥켓 산업도시 내 1.4km²(약 140ha)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추정 사업비 약 720억원이다. 경협 산단 배후에 삼성, LG 등 우리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있어 기존 공단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노이바이 국제공항과 경제특구가 위치한 하이퐁 심해 항만과도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흥옌지역의 전체 인구 118만명 중 노동가능 인구가 71만명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토지임대료도 베트남 북부지역의 다른 산업단지나 공장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More information: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12000462>)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jiho@jplawvn.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